녹조·썩어가는 바닥…죽어가는 영산강

4대강조사위·광주환경단체 4대강 사업 추적 조사

승촌보, 강물 흐름 막아 퇴적토 겹겹이 쌓여 부패 심각

수심 3m 용존산소량 정상치 3배 이하…물고기 못살아

"수심 3m 용존산소량이 겨우 3PPM입니다. 이 말은 물고기가 살 수 없다는 것이고, 영산강이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29일 오후 광주시 남구 영산강 승촌보 선착장에서 4대강조사위원회 박창근 조사단장(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이 소리쳤다. 4대강조사위와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가 수질 조사를 위해 배를 몰고 강 가운데서 떠온 강물은 옅은 쪽빛을 띠었다. 강 바닥에서 퍼온 흙에서는 상태가 심하진 않았지만 역한 냄새가 피어올랐다.

4대강 사업으로 들어선 승촌보는 강물의 흐름을 막았고 멈춰선 강물에선 녹조 현상이 관찰됐다. 물 가장자리 곳곳에서는 쓰레기가 뒤엉켜 떠 있었다.

이날 조사위가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승촌보 인근 영산강의 용존산소량은 수심 0.15m에서 9.2PPM, 1m 7.9PPM, 2m 4.8PPM, 3m 3.0PPM, 3.9m 2.0PPM, 4m 0.7PPM으로 파악됐다. 강바닥으로 근접할수록 용존산소량이 가파르게 떨어진 것이다.

나주시 다시면에 들어선 영산강 죽산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죽산보 인근 영산강에서 측정한 용존산소량은 수심 0.1m에서 9.2PPM, 1m 9.1PPM, 2.1m 7.3PPM, 3m 6.7PPM, 4m 3.5PPM, 4.8m 1.8PPM으로 나타났다.

용존 산소량은 물 속에 포함된 산소량을 나타내며 수질오염의 지표로 사용된다. 보통 물속 용존산소량은 7~10PPM이다. 용존산소량이 3PPM을 밑돌 경우 어류 서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수심 3~4m 아래 영산강에서는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죽음의 강이 된 것이다.

4대강 조사위와 환경단체는 강 바닥으로 갈수록 용존산소량이 급격히 떨어진 원인을 '보'에서 찾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보로 인해 강물이 흐르지 못해 오염된 퇴적토가 겹겹이 쌓이게 됐고, 퇴적토가 썩어가면서 많은 양의 산소를 잡아먹었다는 것이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녹조도, 강으로 유입되는 각종 오염물질도 결국 바다로 흘러가지 못하고 강바닥에 가라앉아 썩는 현상이 되풀이되면서 영산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영산강 곳곳을 살펴본 박창근 단장은 "식수원으로 쓰여 어느 정도 관리가 이뤄지는 낙동강과 달리 영산강은 아예 정부와 지자체 관심에서 멀어져 사실상 홀로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다. 이런 상태가 지속하면 언젠가 영산강 물로 농사짓기도 힘든 날이 다가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4대강조사위와 환경단체는 이날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사업 추적 조사를 위해 영산강을 찾았다. 오전부터 상류인 담양댐에서 승촌보, 죽산보, 영산강 하구둑을 둘러보며 4대강 사업 이후 영산강의 변화를 관찰했다. 이들은 이날 채취한 영산강 강물과 퇴적토에 대한 분석 결과가 나오는 2주 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당국과 국회에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을 해결하라고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4대강조사위가 일정 관계상 현장조사를 하지 못한 영산교(나주 영산포) 구간은 승촌보, 죽산보 주변 영산강과는 견주기 힘들만큼 강물이 녹색빛을 띠었다. 이 구간의 녹조 현상이 두드러진 원인에 대해 나주시와 환경단체는 승촌보와 죽산보의 중간지점으로 유속이 다른 구간보다 늦고 나주 도심에 위치한 특성에서 찾고 있지만, 정확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지난 29일 영산강 승촌보에서 4대강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이 승촌보 부근 퇴적토를 채집하고 있다. 왼쪽은 녹조가 빠르게 확산하는 나주 영산교 밑 영산강 중류지점.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뜸 05:04 / 해짐 19:36 / 달뜸 03:53 / 달짐 18:10

야외활동 주의

구름이 많고 가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지역별 날씨 (℃)

광 주	구름많음	20/35	보 성	구름많음	24/32
목 포	구름많음	25/32	순 천	구름많음	26/33
여 수	구름많음	26/31	영 광	구름많음	25/33
나 주	구름많음	25/35	진 도	구름많음	25/32
완 도	구름많음	25/32	전 주	구름많음	25/34
구 례	구름많고한때비	24/34	군 산	구름많음	25/33
강 진	구름많음	24/33	남 원	구름많고한때비	24/33
해 남	구름많음	24/33	흑산도	구름많음	23/29
장 성	구름많음	24/33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북~북동	0.5	북~북동	0.5
	먼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1.0
남해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0	북동~동	0.5~1.0
	먼바다(동)	북동~동	1.0~1.5	북동~동	1.0~1.5
	먼바다(서)	북동~동	1.0~1.5	북동~동	1.0~1.5

◇물때

	밀물	썰물
목포	00:49	06:15
	12:51	18:18
여수	07:54	01:51
	20:31	13:54

◇생활지수

식중독	주의
자외선	높음
미세먼지	보통

◇주간 날씨

2(화)	3(수)	4(목)	5(금)	6(토)	7(일)	8(월)
26/34	25/32	24/32	24/32	24/31	24/32	24/32

세방산업 공장 재가동…시민단체 반발

1군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배출 논란으로 조업을 중단한 세방산업이 16일 만인 지난 29일 공장 가동을 부분적으로 시작했다. 세방산업 공장 재가동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는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세방산업은 지난 29일 생산라인의 50~60%를 재가동했다고 31일 밝혔다.

배터리 부품 제조업체인 세방산업은 2014년 한해에만 294t의 TCE를 배출하는 등 환경부 화학물질배출 조사 결과 2008년부터 6년 동안 전국에서 가장 많은 1군 발암물질을 배출한 업체로 꼽혀 지난 13일 조업을 중단했다.

사측은 공장을 가동하면서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의 도움을 얻어 TCE 배출량을 정밀 측정할 예정이다. 측정 결과에 따라 연구원이 내놓을 저감 대책도 이행하겠다고 사측은 전했다.

광주지역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지난 31일 성명을 내고 "세방 측은 TCE 정밀 점검을 위한 부분 재가동이라고 이유를 밝혔지만, 이는 검증위원회에서 객관적인 업체를 통해 꼼꼼히 짚어 보아야 할 문제이지 업체에서 단기간에 점검하고 끝낼 성격의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증위원회를 통한 철저한 검증과 시민들의 불안 해소가 전제되지 않은 공장 재가동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TCE 사용 중지에 대한 근본 대책 없는 재가동을 중단하고, 노동자와 광주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세방산업 대표를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광주·전남 폭염 속 물놀이 사고 잇따라

완도 70대·광양 초등생 익사…여수 스킨스쿠버 2명 사망

광주·전남지역에 35도 안팎의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또 각종 안전사고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31일 오후 완도군 신지면 명사십리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박모(70)씨가 물에 빠져 숨졌다. 박씨는 아들 가족과 물놀이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30일 오후 4시46분께 광양시 옥룡면 한 교각 아래 하천에서는 물놀이를 하던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물에 빠져 숨졌다. 이 학생은 여수지역 모 교회 교인들과 피서를 즐기다 이 같은 사고를 당했다.

여수 거문도에서는 스킨스쿠버를 하던 동호회원 2명이 잇따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오후 2시29분께 여수시 거문도 칼등여 인근 해역에서 스킨스쿠버를 하던 성모(여·54)씨가 물에 빠져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성씨는 이날 오전 11시40분께 동호회원 21명과 함께 거문도를 출항했으며, 2인1조로 스쿠버 활동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29일 오후 1시18분께는 거문도 인근 해상에서는 스킨스쿠버를 하던 하모(54)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거문도 인근 해상에서 스쿠버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동호회 관계자 및 목격자 대상으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무더운 여름 물놀이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안전사고도 발생했다. 30일 오후 7시19분께 함평군 월야면 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지하실에서 페인트 도색 작업을 하던 직원과 하청업체 근로자 등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무더위 속에 밀폐된 공간에서 페이트 작업 중 유증기에 질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경인기자kki@kwangju.co.kr

전남대 총장 간선제 반발

교수들 단식 농성 돌입

전남대 교수들이 대학본부의 일방적인 총장 간선제 방침에 반발, 단식 농성에 들어가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국·공립대 교수회 연합회도 지지 입장을 밝혔다.

전남대 교수회·평의원회는 1일 낮 12시부터 김영철 교수회장이 '대학의 자율성 쟁취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교수회는 총장선거제도 개선 및 선거관리 특별위원회를 통해 총장선출방안을 마련, 지난 3월 교수 총투표를 통해 직선제 방식의 총장 선출 방식을 결의해 대학본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지병문 간선제 방식의 개정안을 독자적으로 발의, 대학 평의원회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옥시, 가습기 피해 위자료 최대 3억5천만원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 피해자에 대한 최종 배상안을 발표하고 8월부터 배상신청을 받기로 했다.

옥시(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는 한국 정부의 1·2차 조사에서 1·2등급(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피해 가능성 거의 확실 또는 가능성 높음) 판정을 받은 자사 제품 사용자에 대한 배상안을 지난 31일 발표했다. 앞서 옥시는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 설명회를 열고 피해자의 과거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일을 해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 등을 배상하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최고 3억5000만원(사망시) 지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